

美 중간선거 선거자금 모금 민주당 '완승'

최다 기록...역대급 '전의 전쟁' 접전 69개 하원 선거구 모금액 민주당이 공화당에 크게 앞서

의모금액이 2010년 중간선거 때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435명의 연방 의원을 전원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 까지 12억 달러(1조3485억원)가 모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이는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둔 같은 기간에 세워진 10억 달러(1조1236억원)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의석의 3분의 1이 교체되는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들의 모금액이 9억5000만 달러(1조673억원)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간선거 때에는 이 기간 8억

4400만 달러(9483억원)가 걸렸다. 선거에서 돈은 '실탄'에 비유되는만큼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2016년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은 출범 23개월에 접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설욕을 버리고 있다. 하원에서 23석, 상원에서 2석을 더 얻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게 목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선거자금 모금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완승'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민주당 모금 규모가 공화당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까지 5억5100만 달러를 모금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3억68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원의 경우도, 민주당 후보들이 6억 8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공화당 후보들의 5억4000만 달러를 추월했다. AP통신은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들 가운데 110명은 맞상대하는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이 벌어지는 하원 선거구 가운데 69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모금액이 공화당 후보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재선 도전 100%" "중간선거 공화당 돕고 있어 지더라도 내책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저녁 방송될 예정인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의 발췌록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선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그렇다. 100%"라고 답했다. 그는 2020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민주당 소속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 대해선 이기기 "매우 쉬운" 상대라며 "그가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돕는 중"이라며 "공화당이 지더라도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로코 열차 탈선 80여명 사상 북아프리카 모로코 수도 라바트 근처에서 16일(현지시간) 열차가 탈선, 차량들이 철로 위에 나뉘고 있다. 이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관련해 "누구도 (나처럼) 이런 파급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한때 자신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충북'으로 불리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마이클 코언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법무를 다루는 홍보인(PR person)"이라고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시했다는 코언의 증언에 대해 그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코언이 가벼운 형기를 받았다고 거세를 했다는 게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략의 윤곽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맥킨 백악관 법률고문 후임으로 보수성향 인사인 팻 시플론 변호사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에 물러나기로 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은 앞으로 1~2주 이내에 발표될 것이라며 말했다. /연합뉴스

美남동부 강타 허리케인 '마이클' 사망자 최소 30명

플로리다·조지아 주 등 큰 피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최소 17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 숫자가 16일 현재 최소 30명으로 늘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토미 포드 보안관은 현지 언론에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에서만 12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의 사망자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또 조지아 주에서도 1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명, 버지니아에서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AP통신은 플로리다에서만 최소 16명이 숨졌고 버지니아 5명, 노스캐롤라이나 3명, 조지아 2명 등 총 2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메이저급인 4등급 허리케인으로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마이클'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6개 주를 휩쓸고 지난 12일 버지니아 동부 해안을 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이후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마지 전정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부서진 주택, 도로 등 처참한 상흔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 당국은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록 인명피해 보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경우 약 13만7000채의 주택과 사업체에 여전히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식수와 식량 배급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금지령과 휴교령이 유지되는 등 피해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절대권력 다지기 군부 숙청 칼바람 팡핑후이 前 참모장·장양 주임 등 후진타오 인맥 축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절대 권력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군부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팡핑후이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양 전 정치공작부 주임에 대한 기율 및 법 위반 혐의를 심사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들의 상장 계급을 박탈하고 군적도 삭제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팡핑후이는 당의 정치 규율을 크게 위반했고 뇌물 수수했으며 불분명하게 거액의 부를 축적한 혐의가 있다"면서 "죄질이 아직 나쁘며 상납받은 액수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양도 당의 정치 규율을 위반했

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팡핑후이와 마찬가지로 수뢰 등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18기 중앙위원이자 중앙군사위 위원이었던 팡 전 참모장은 '부패 몸통' 귀보송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군내 파벌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란저우군구 산하의 21집단군 군단장을 지낸 당시 귀보송은 란저우군구 사령관으로 직속상관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은 직무상 교류가 빈번했고 팡핑후이는 매번 인사상 교류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양 전 주임 또한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군부를 장악했던 귀보송과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인맥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무역전쟁 일시적 충격 주지만 곧 해소"

중인민일보 비판론 비판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이자 세계 최고의 공업 제품 제조국, 화물 무역국"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는 무역전쟁 비판론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17일 논평에서 "중미간 무역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일부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런 비판론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무역전쟁 비판론의 논조는 중국이 절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경제성장이 계단식 하락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심지어 무역전쟁이 국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무역전쟁이 중국에 끼치는 영향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세계 2대 경제체이자 세계 최고의 공업 제품 제조국, 화물 무역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발전, 민생경제 등 부문에서도 무역전쟁은 대규모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을 유발하지 못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발전에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충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이날 사평을 통해 무역전쟁은 중국을 일깨우고, 중국사회를 성숙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전에 중국인은 중미관계를 상호협력의 관점에서 봤으나 무역전쟁을 통해 엄혹한 경쟁의 일면을 느끼게 됐다"면서 "무역전쟁은 중국인들에게 자력갱생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일 공동개발 미사일 하와이서 요격실험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요격실험이 다음주 미국 하와이서 진행된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이 요격미사일을 2021년까지 배치할 방침이지만, 최근 두 차례 이뤄진 요격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도 실험이 실패하면 이 요격미사일 배치가 늦어지면서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 구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음주 예정된 실험은 미군의 이지스함이나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가 SM3블록2A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로 가장한 표적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 방위성도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실험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이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2월 실험은 성공했지만 같은 해 6월과 지난 1월에는 실패했다. 미국과 방위성측은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실험도 성공하지 못하면 일본 배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나주,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